

元稹의 애정시 연구

-애행과의 애정시를 중심으로

신민야*

<目 次>

1. 서론
2. 원진의 애정시 창작 배경
3. 원진의 애행과의 애정시 분석
1) 승歡의 즐거움
2) 잠깐의 헤어짐과 그리움
3) 결별과 지난 날에 대한 추억
4. 결론

1. 서론

원진(779-831)¹⁾은 백거이와 함께 '元白'으로 병칭되어 중당시기의 대표 시인으로 꼽히지만,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변절했다고 받아들여지고 또한 인품에 대한 논란도 있어 백거이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²⁾ 따라

*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1) 字가 微之이다. 쇠락한 관료집안에서 태어나 집안 환경이 어려웠으며,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9세 때 시문에 능하였고 15세에 明經科에 합격하였다. 25세 때 吏部에서 실시하는 書判拔萃科에 4등으로 합격하여 秘書省校書郎에 제수되었다. 28세 때 明經이나 進士의 급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특수 인제선발시험인 制舉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해 左拾遺가 되었으며, 뒤에 監察御史에도 제수되었다. 이후 환관에게 미움을 받아 10년간 폄직되었다. 나중에는 환관과 밀착하여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武昌軍節度使가 되었다가 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재 《元氏長慶集》이 전해지며, 1982년에 中華書局에서 冀勤이點校하여 《元稹集》(全二冊)을 출판했다. 본 논문은 中華書局에서 나온 《元稹集》을 저본으로 했다.
- 2) 원진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술 생활에서 변절하여 환관과 밀착해 환관의 힘을 빌려 높은 벼슬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행을 버리고 명문세도가 위하경의 딸 위충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 사학자 진인각은 "그 일생의 행적을 종합해 보면 교묘히 환관에게 영합하여 이익을 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교묘히 이용한 것은 더 가증스럽다. 어찌 정이 많다고 하겠는가? 사실 속임이 많았을 뿐이다(綜其一生行迹, 巧密固

48 中國文化研究 第20輯

서 원진에 대한 연구 역시 백거이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목을 훨씬 적게 받았다. 국내에서는 원진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그의 전기소설 《앵앵진》에 집중되었고,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시에만 집중되어 왔다.³⁾ 최근에 진행된 연구 중 원진의 사회시 외에 애정시 등에 대한 언급이 보이기는 하지만⁴⁾ 아직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전면적이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진의 시 중 특히 애정시는 그 연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⁵⁾ 국내에서는

不待言, 而巧婚尤爲可惡也。豈其多情哉? 實多詐而已矣”(陳寅恪, 〈元白詩箋證稿〉, 《隋唐制度淵源略論稿(外二種)》, 河北教育出版社, 2002年, 408쪽)라며 비판하였다. 노신은 《앵앵진》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며 “오직 소설 마지막 부분에 잘못을 미화시키고 허물을 덮으려 했으니 결국 잘못된 길로 떨어졌다(惟篇末文過飾非, 遂墮惡趣)”(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九卷, 人民文學出版社, 1991, 82쪽)라 지적했다.

3) 원진 사회시와 관련된 학위논문은 아래와 같다.

김미현, 〈원진의 사회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은정, 〈중당 우연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鄭鎬榮, 〈원진과 그 악부시 연구〉,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8.

김경동, 〈원진·白居易 사회시 연구〉, 成均館大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7.

朴永壽, 〈원진의 社會詩 연구〉, 漢陽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1.

학술지에 발표된 원진 관련 논문은 아래와 같다(소설 《앵앵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제외).

김경동, 〈원백(元白) 교유개시 연대에 관한 반론과 재론〉, 《중어중문학》 35집, 2004.

김경동, 〈원진 정치풍류시의 이중성〉, 《중어중문학》 24집, 1999.

김경동, 〈원진론 - 임환생애 (任宦生涯)와 〈앵앵진 (鶯鶯傳)〉을 중심으로 -〉, 《중국문학연구》 11집, 1993.

김영계, 〈당대의 양세와 원진의 「동주주규전상 (同州奏均田狀)」〉, 《동양학》, Vol.26 No.1, 1996.

4) 《중국 도망시(悼亡詩)의 서술방식과 상징체계》(주기평, 《중국어문학》 45집, 2005)에서는 중국의 역대 悼亡詩를 서술하면서 원진의 悼亡詩도 언급하고 있으며, 《진통시기 중국문인의 애정 표현 연구 -이상운을 중심으로-》(이지운, 한국학술정보(주), 2007)에서는 '제2장 이상운 이전의 애정시 개황'에서 중당시기 문인 애정시를 서술하면서 원진의 애정시를 언급하고 있다.

5) 중국 근현대의 유명한 사학자 陳寅恪은 그의 명저 〈元白詩箋證稿〉에서 "원진은 절세의 뛰어난 재주로 남년의 생사, 이별,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펼쳐 썼다. 그 애절하고 구정침은 당대 문인의 시 중에서 많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특히 크다(微之以絕代之才華, 抒寫男女生死離別悲歡之情感。其真摯纏綿, 不僅在唐人詩中不可多見, 而影響及於後來之文學者尤巨)"(陳寅恪, 〈元白詩箋證稿〉, 《隋唐制度淵源略論稿(外二種)》, 河北教育出版社, 2002年, 395쪽)라며 원진이 애행과의 사랑을 쓴 애정시와 첫 번째 아내 위충에 대해 쓴 悼亡詩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진인각은 이 책에서 원진이 판적생활과 결혼을 함에 있어 권세에 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진의 애정시와 悼亡詩에 대해서는 그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원진의 애정시 중 가장 대표성을 띄는 것은 첫사랑인 앵앵과의 사랑을 담은 작품들이다. 원진은 이 작품들에서 보통의 중국 문인들이 유가적인 틀에 갇혀 연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인에 대한 진솔한 사랑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周相錄의 《元頤年譜新編》⁶⁾에 의하면 원진이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은 〈古豔詩〉2수, 〈鶯鶯詩〉, 〈贈雙文〉, 〈晚將別〉, 〈新秋〉, 〈白衣裳〉2수, 〈恨妝成〉, 〈桃花〉, 〈春詞〉“一雙玉手十三弦”, 〈箏〉, 〈暮秋〉, 〈憶事〉, 〈春別〉⁷⁾, 〈會眞詩三十韻〉, 〈魚中素〉⁸⁾, 〈古決絕詞〉3首⁹⁾, 〈壓露齒花〉¹⁰⁾, 〈嘉祥驛〉2首¹¹⁾, 〈夢游春七十韻〉, 〈夢昔時〉¹²⁾ 등 총 25 수이다. 본 논문은 이 25 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원진이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원진의 애정시 창작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원진의 애정시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원진의 애정시가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원진의 애정시 창작 배경

원진의 애정시 창작 배경은 크게 그가 살았던 중당¹³⁾ 시기의 특징과 원진의 개인적인 상황, 이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학자에 따라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 선정과 창작시기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본 논문은 주상목의 《元頤年譜新編》의 견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또 중국 일부 학자는 《앵앵전》에 나오는 장생이 원진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소설 속 이야기가 어느 정도 원진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론이며 본 논문 역시 학계의 통론을 따랐다).
- 7) 이상 15수는 원진이 22세인 정원 16년 즉 800년에 창작하였다(원진이 779년 출생이므로 정원 16년인 800년에 만 21세이다. 그러나 주상목의 《元頤年譜新編》은 원진의 나이를 만으로 쓰지 않고 한 살 많은 중국식 나이로 계산하고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도 원진의 나이를 《元頤年譜新編》에 따름을 밝혀 둔다).
- 8) 이상 2수는 원진이 23세인 정원 17년 즉 801년에 창작하였다.
- 9) 이상 3수는 원진이 24세인 정원 18년 즉 802년에 창작하였다.
- 10) 이상 1수는 원진이 27세인 정원 21년 즉 805년에 창작하였다.
- 11) 이상 2수는 원진이 31세인 원화 4년 즉 809년에 창작하였다.
- 12) 이상 2수는 원진이 32세인 원화 5년 즉 810년에 창작하였다.
- 13) 756년(肅宗 至德 元年) ~ 835년(文宗 太和 9年)까지를 가리킨다.

먼저 중당 시기의 특징부터 살펴본다. 안사의 난 이후 중당 시기에 일어난 사회의 대변혁은 문인들의 창작 경향에 변화를 가져와 그동안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의 문제를 과감하게 창작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인 배경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개방성은 이민족의 문화의 포용과 융합, 女權 사상의 고양¹⁴⁾, 혁신적인 兩性觀¹⁵⁾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둘째, 당나라가 흥성기로부터 쇠락기로 접어든 것과 이로 인한 문인들의 삶의 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안사의 난으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당나라가 커다란 상처를 입은 후 大曆 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뜻있는 인사들이 당의 중흥을 꾀하였으나, 조정은 환관과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외족의 침입까지 잦았다. 중당의 문인들은 성당의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었고, 또 정치적인 타격까지 입고 난 뒤¹⁶⁾ 인생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중당 문인들의 관심은 나라 걱정을 하는 큰 주제로부터 신변의 자질구레한 일로 옮겨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이 문학창작에도 반영되어 개인의 한적함, 주색에 빠져 놀고 즐기는 일 등을 작품 속에 담게 되었다. 또한 당나라의 문화가 다원화되면서 엄격한 유가적 가치관도 느슨해지면서 사회가 향락적인 분위기에 젖게 되었다. 따라서 문인들 역시 주색에 빠지고 기생을 데리고 노는 등 현재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당 문인들은 예전 문인들이 감히 시 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향락적인 도시생활이다. 안사의 난이 특히 당나라 농촌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 데 비해 도시는 안사의 난 이후 회복이 빨라 향주·양주 등의 강남 지역

- 14) 北朝 여성의 지위는 아주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당나라에도 그대로 수용이 되어, 일례로 당의 高宗부터 睿宗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武則天·韋后·安樂公主·太平公主·金仙公主·玉眞公主 등의 여성들이 “女人國”의 형상을 이루었다.
- 15) 당나라는 이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방적이고 禮法이 느슨하여 여성의 성행위 자유가 많이 주어졌던 편이었으며, 여성의 결혼 전 성행위, 혼외 연애, 이혼과 재혼의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전기소설 《곽소옥전》의 이익과 곽소옥, 《앵앵전》의 장생과 꾀맹맹, 《이와전》의 정랑과 이와의 애정고사는 비극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소설 속의 대담하고 자주적인 연애는 당대 사회의 한 반영이기도 하다.
- 16) 백기이, 원진, 한유, 유충원 등이 필적을 당하였다.

의 도시는 다방면에서 경제가 발달하였다. 향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인들은 특히 기녀들과 어울려 오락활동을 즐기는 일들이 많았다.

넷째, 도교의 흥성이다. 당나라는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어서 도교 역시 흥성했다. 특히 여성이 도교의 道士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도사들은 신전을 찾고 도를 찾는다는 명목과 사람들에게 도교의 법경을 강론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유롭게 이성들과 교제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일반 여성들보다 더 자유로웠다. 중당 문인들은 도교 여도사들과도 교류가 많았으며 여도사의 형상을 시 속에 묘사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러한 중당 시기를 살았던 白居易, 張籍, 劉禹錫, 李益, 孟郊, 李賀 등의 많은 시인들이 애정시를 창작하고 있으며 원진의 앵앵과의 애정시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창작되었다.¹⁸⁾

중당의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원진의 개인적 상황 역시 그가 애정시를 창작하는 주요 배경이 된다. 원진은 중당 시기의 한 가운데인 779년(唐 代宗 大曆 14年) 長安의 靖安坊에서 태어났다.¹⁹⁾ 8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원진은 어머니와 형, 두 누나와 함께 외가집이 있는 鳳翔으로 가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원진 가족은 외가집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했으며, 원진의 외삼촌은 당시의 원진을 안쓰럽게 생각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원진이 받은 유가적 규범의 교육은 정통 사대부 집안에 비해 느슨했다.

9살 때 시를 지을 줄 알게 되었으며, 술을 마시면 한 말 남짓 마셔야 취했는데, 당시는 외삼촌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 때였습니다. 외삼촌이 안쓰럽게 생각하여 예교로써 책망하고 단속하지 않아, 이중사촌 형 호령지의 친구들 열

17) 예를 들어, 백기이는 그의 시 《玉眞張館主下小女觀阿容》에서 “綽約小天仙, 生來十六年。姑山半峰雪, 瑤水一枝蓮。晚院花留立, 春窗月伴眠。回眸嚙欲語, 阿母在旁邊。”라며 도교 여도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8) 唐佳, 《論中唐艷詩的文化心態》, 華僑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2~57쪽 참조.

19) 원진은 長安에서 태어났고, 河南 洛陽에서 살았던 기간이 짧았으나 스스로 河南 洛陽人이라 칭했다. 원진은 중국 고대 서북지역의 유목민인 鮮卑族의 후예로 원진의 선조인 北魏의 孝文帝가 洛陽으로 도읍을 옮긴 뒤, 鮮卑族의 각 성씨들은 스스로 河南 洛陽人이라 했으며, 원진 역시 이에 따라 자신을 河南 洛陽人이라 했다.

몇 명과 어울려 밤낮으로 놀았던 것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 지금부터 20년 전이 되었습니다.(九歲解賦詩, 飲酒至斗餘乃醉, 時方依倚舅族, 舅憐, 不以禮數檢, 故得與姨兄胡靈之輩十數人爲晝夜遊, 日月跳擲, 於今餘二十年矣.²⁰⁾)

이처럼 원진이 자유롭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봉상은 당시의 변방 지역으로 이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원진은 유가적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風流才子’²¹⁾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게 된다.

이러한 원진이 그의 인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거나 부부의 연을 맺은 여인은 4명이 있었다. 결혼 전의 사랑으로는 鶯鶯을 들 수 있으며, 부부의 연을 맺은 여인으로는 첫째 아내 韋叢, 첩 安仙娥, 둘째 아내 裴淑 등이 있었다. 이 중 위충과 안선빈은 병사하여 원진은 이들과 사별을 했다. 이 여인들과 함께 한 시간은 앵앵이 몇 달, 위충이 6년, 안선빈은 4년, 배숙은 16년이었다. 이 중 원진의 정이 가장 깊었던 여인은 앵앵과 위충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 이 두 사람을 위한 시가 몇 십편이 되는데, 앵앵과는 주로 보구사에서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를 남기고 있으며 위충과는 위충이 병사한 후 그녀를 애도하며 쓴 悼亡詩를 남기고 있다. ‘風流才子’로서의 원진은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개인적 배경 아래 탄생한 것이며, 앵앵과의 애정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창작된 것이었다.

3. 원진의 앵앵과의 애정시

정원 10년(794) 16세 때 명경과에 급제한 원진은 7년간 등용을 기다리는 기간(守選)을 가졌다. 당대 문인들은 등용을 기다리는 시기에 여성들과 연애를 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원진도 등용을 기다리던 6년째 되던 해, 즉 정원 16년(800) 22세 때 봄 普救寺에서 최앵앵과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앵앵과의

20) 〈答姨兄胡靈之見寄五十韻〉詩序, 《元稹集》, 中華書局, 1982, 123쪽.

21) ‘風流才子’는 ‘풍모가 멋스럽고 재능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원진의 전기소설 《앵앵전》에도 “所善楊巨源好屬詞, 因爲賦《崔娘》詩一絕云: ‘清潤潘郎玉不如, 中庭蕙草雲消初。風流才子多春思, 腸斷蕭娘一紙書。’”(《元稹集》, 《鶯鶯傳》, 中華書局, 1982, 676쪽)라며 이 단어가 등장한다.

사랑을 노래한 원진의 애정시를 크게 내용상 앵앵과의 밀월의 즐거움을 노래한 ‘合歡의 즐거움’, 원진이 장안으로 吏部의 시험을 보러 떠나는 전후 앵앵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잠간의 헤어짐과 그리움’, 원진이 앵앵과 완전히 이별할 때와 이별 후의 감정을 노래한 ‘결별과 지난 날에 대한 추억’으로 나뉘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合歡의 즐거움

원진이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앵앵과 처음 만난 후 몇 달동안의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들은 앵앵의 고풍적인 외모, 앵앵의 신비로움, 앵앵의 춤과 연주, 앵앵과의 동침으로 인한 사랑의 달콤함 등 合歡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봄이 와서 자주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와, 소매를 늘어뜨리고 가슴을 열어 좋은 바람을 기다리네. 앵앵의 답에는 버드나무가 드리운 채 말하는 사람 없고, 오직 담의 꽃만이 나무 가득 붉구나. (春來頻到宋家東, 垂袖開懷待好風, 鶯牆柳閣無人語, 惟有牆花滿樹紅. (其一))²²⁾

이 시는 〈古艷詩〉2首 중 첫 번째 시이다. 첫 구에 나오는 ‘宋家東’은 ‘宋玉東牆’을 줄인 말로 미모가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한 여인을 가리킨다. 전국시대 초나라 宋玉의 작품 《登徒子好色賦》에 “동쪽 이웃의 딸이…… 눈썹은 물총새 털같고, 피부는 흰 눈같고, 허리는 명주를 묶은 것 같고, 치아는 조개를 머금은 것 같았습니다……그러나 이 여인이 담을 올라와 저를 몰래 엿보기를 3년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東家之子……眉如翠羽, 肌如白雪, 腰如束素, 齒如含貝……然此女登牆窺臣三年, 至今未許也)”라는 말이 나온다. 이 시에는 원진이 앵앵과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레임이 잘 드러나 있다.

22)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38쪽. (《全唐詩》 권422에는 이 시의 제목 아래 주를 달아 “《春詞》라고도 한다(一作《春詞》)”라고 했으며, 馬元調의 《元氏長慶集補遺》 권1에서는 제목 아래에 주를 달아 “《앵앵전》에서 《春詞》 二首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이다(即《傳》所謂立綴《春詞》二首是也)”라 하였다.)

깊은 절 안에 사람 없고 초목은 빛나는데, 아리따운 앵앵은 말없이 그들 속으로 숨네. 대수롭지 않게 물장난 치니 꽃잎이 흘러오는데, 흘러나온 문 앞에서 阮郎²³⁾을 속인 것이라네. (深院無人草樹光, 嬌鶯不語趁陰藏, 等閑弄水流花片, 流出門前賺阮郎. (其二))²⁴⁾

이는 〈古艷詩〉 2首 중 두 번째 시로 동한의 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가 선녀를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를 빌어 자신과 앵앵의 만남을 비유하고 있다. 원진은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에서 앵앵을 자주 선녀로 비유하고 있다. 다음의 〈鶯鶯詩〉는 앵앵의 표정과 옷차림을 통해 앵앵의 신비로움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젊은 붉은색과 옅은 푸른색 낡은 저고리와 치마, 차례로 머리 빗고 어두운 화장하네. 야합하는 안개 낀 몽롱한 새벽 달 빛에 싸이고, 모란이 비를 맞아 석양 아래 흐느껴 우는 듯 하네. 떠돌아다니는 안개 속 숨긴 듯한 미소는 원래 웃지 않은 것이고, 사방에 가득 퍼진 맑은 향기는 향기가 아닌 듯 하네. 서둘러 움직여 결눈질해 유모에게 화를 내고, 한가함을 기다려 짙은 청연을 만나네. (殷紅淺碧舊衣裳, 取次梳頭暗淡妝, 夜合帶烟籠曉月, 牡丹經雨泣殘陽, 低迷隱笑元無笑, 散漫清香不似香, 頻動橫波噴阿母, 等閑教見小兒郎.)²⁵⁾

이 시의 처음 두 구는 앵앵의 옷차림과 화장 등 외모를 묘사하고, 이어서 앵앵을 안개 낀 몽롱한 새벽 달 빛에 싸인 ‘야합화’와 비 맞아 석양 아래서 흐느끼는 듯한 ‘목란’으로 그 묘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앵앵의 ‘웃지 않은 듯한 미소(低眉隱笑元無笑)’와 ‘향기가 아닌 듯한 향기(散漫清香不似香)’는 앵앵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꺾기가 지극해 도리어 원망을 머금고, 어여뻐 여깁이 많아 더욱 저절로 아

23) 남조 송 유의경의 《유명록》에 동한의 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가 선녀를 우연히 만나 반년을 지나다 돌아오니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진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빌어 자신과 앵앵의 만남을 비유하고 있다. (劉義慶 撰, 張湛海 譯註, 《幽明錄》, 38, 유신(劉晨)-완초(阮肇), 65~68쪽, 서울, 살림출판사, 2000)

24)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38쪽.

25)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41-642쪽.

름답구나. 어떤 때는 또 잠시 웃으며, 한가히 앉아 무료함을 사랑하는구나. 새벽 달이 가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봄 등불이 꺼지려는 것을 보네. 어찌 <垂手>를 추려 하는가? 감히 <迴腰>를 바라보지 못하네. (艷極翻含怨, 憐多轉自嬌, 有時還暫笑, 閑坐愛無聊, 曉月行看墮, 春酥見欲銷, 何因肯<垂手>? 不敢望<迴腰>.)²⁶⁾

위의 시는 <贈雙文>이다. 원진의 애정시에 '雙文'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鶯鶯'이라는 이름이 글자 '鶯'이 두 개인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원진 시의 '雙文'은 바로 '鶯鶯'을 가리킨다.²⁷⁾ 이 시의 1·2구는 너무나도 고와 오히려 원망을 머금은 듯한 앵앵의 고희적인 외모를 묘사하고 있으며, 3·4구에서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한가히 앉아 있는 앵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5·6구에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묘사하며, 마지막 7·8구에서는 앵앵이 舞曲 <垂手>와 <迴腰>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앵앵은 춤과 악기 연주에도 뛰어난 여인으로 다음 시 <春詞> "一雙玉手十三絃"에서는 앵앵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한 쌍의 옥 같은 손이 13개의 현을 타고, 안축(雁足)²⁸⁾을 옮겨다녀 높고 낮은 음이 귀밑머리 옆으로 떨어지네. (一雙玉手十三絃, 移柱高低落鸞邊, (其一))

바로 지금까지 연주한 곡을 물으니, 부끄러워 말을 못해 어여쁘게 생각하게 하는구나. (卽問向來彈了曲, 羞人又道想夫憐, (其二))²⁹⁾

이 시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구로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앵앵이 옥같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매력적인 모습과 연주한 후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恨妝成>에는 밤을 즐긴 뒤 앵앵이 새벽 단장을 하는 모습

26) 元頤 撰, 冀勤 點校, <元頤集>, 中華書局, 1982, 642쪽.
27) 楊軍은 <元頤集編年箋注(詩歌卷)> (西安, 三秦出版社, 2002)의 44쪽에서 宋王鈺의 <傳奇辨正>에 "시 속에 '雙文'을 말한 것이 많은 데 의미는 두 개의 '鶯'자를 쌍문이라 한 것이다(詩中多言'雙文', 意謂二鶯字, 爲雙文也)"라 한 것을 언급하며 '雙文'이 바로 '鶯鶯'임을 설명하고 있다.
28) 현악기의 줄 밑에 피어 소리를 조절하는 것.
29) 元頤 撰, 冀勤 點校, <元頤集>, 中華書局, 1982, 700-701쪽.

을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다.

새벽 해가 뜬 사이로 밝게 비추니, 휘장을 열고 단장을 하는구나. 분을 바르니 귀한 자태 흐르고, 뺨에 연지 붉게 바르니 어여쁨이 빛나는구나. 부드러운 머리 이마로 흘러내리고, 촘촘한 귀밑머리 비녀로 모아지네. 비취 빛을 모아 초승달 같은 눈썹 그리고, 붉은 색을 가볍게 꽃같은 뺨에 터네. 머리 가득 작은 빗으로 빗고, 얼굴 마주하니 붉은 보조개 피어나네. 꽃이 질 때가 가장 한스러우니, 단장을 다하고 홀로 가리개를 걸치네. (曉日穿隙明, 開帷理妝點, 傅粉貴重重, 施朱憐冉冉, 柔鬢背額垂, 叢鬢隨釵斂, 凝翠暈蛾眉, 輕紅拂花臉, 滿頭行小梳, 當面施圓鬢, 最恨落花時, 妝成獨披掩.)³⁰⁾

분과 연지를 바르고 머리를 손질하고, 다시 눈썹을 그리고 붉은 화장을 하는 모습을 통해 앵앵의 요염한 자태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會眞詩三十韻>은 앵앵과의 合歡의 즐거움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희미한 달 빛이 처진 창을 비추고, 만디 불빛 푸른 하늘 지나가네. 먼 하늘 처음에 아득하더니, 낮은 나무 점점 몽롱해져가네. 용이 입김을 불어 정원 나무를 지나가고, 꾀꼬리 노래하며 우물의 오동나무 흔드네. 비단을 엮은 안개처럼 늘어뜨리고, 쾌옥은 가벼운 바람에 소리를 내네. 붉은 의장(倚仗)이 서왕모를 따르고, 구름 속에서 선녀가 모시고 있네. 시간이 깊어가니 사람들 조용하고, 새벽에 만나니 가랑비가 자욱히 오는구나. 구슬의 밝음이 화려한 신발을 빛내고, 꽃의 밝음이 수놓인 용을 숨게 하네. 옥비녀에는 고운 빛깔 봉황이 다니고, 비단 치마 붉은 무지개 감싸네. 신선이 사는 요화포(瑤華圃)로부터 왔으며, 장차 벽제궁(碧帝宮)에 천제(天帝)를 뵈러 간다 말하네. 낙성(洛城)의 북쪽에서 노닐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하네. 노닥거림을 처음엔 가볍게 거절하더니, 부드러운 정 이미 물레 통했네. 쪽진 머리 낮추니 머리 모양 움직이고, 걸음을 돌리니 꽃잎에 덮이네. 얼굴을 돌리니 눈물 방울 흐르고, 침대에 올라 화려한 비단들을 끌어안는구나. 원앙은 서로 목을 엮어 춤을 추고, 비취새는 사랑을 나누며 새장 속에 있구나. 눈썹 딱 부끄러워 자주 정그리고, 입술은 붉어 따뜻하고 촉촉하네. 숨결이 많아 난 초 꽃처럼 향기롭고, 피부는 윤기 흐르고 옥같은 살결 풍만하네. 힘 잃어 팔목 움기기 귀찮아하고, 애교 많아 몸 오므리기 좋아하네. 땀이 빛나 땀 구슬

30) 元頤 撰, 冀勤 點校, <元頤集>, 中華書局, 1982, 682쪽.

방울 방울. 흩어진 머리 푸르스름하게 헝클어져 있네. 한창 천년의 만남을 기뻐하는데, 잠시 후 오경(五更)이 다했다는 소리 들네. 머무르기에겐 시간에 한계가 있건만, 정이 깊이 들어 마음은 헤어지기 어렵네. 보드라운 뺨은 근심 스러움 머금고, 향기로운 작별 인사 마음에서 나와 맹세하네. 옥고리 선물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뜻 전하고, 회문(迴文) 모양의 매듭 지어 마음이 같음을 표현하네. 눈물 섞인 분가루 맑은 거울에 흘러내리고, 잦아드는 향로 불빛 어둑 속의 벌레 둘러싸 비추네. 아름다운 빛 여전히 반짝이는데, 아찔해는 점점 떠오르네. 오리 타고 낙수(洛水)로 돌아가며, 통소 불며 또 송산(嵩山)에 오르네. 옷에는 여전히 사향 향료 배어 있고, 베개에는 아직도 붉은 화장기 남아 있네. 가득 덮인 연못가 풀에 가까이 가고, 마음 가누지 못해 물가의 측을 생각하네. 질박한 거문고 《별학조(別鶴操)》를 연주하고, 맑은 은하수 넘어 돌아오는 기러기 바라보네. 바다는 넓어 참으로 건너기 어렵고, 하늘은 높아 오르기가 쉽지 않네. 가는 구름 정처 없고, 소사(蕭史)는 누대 안에 있구나. (微月透簾櫳, 螢光度碧空. 遙天初縹緲, 低樹漸葱籠. 龍吹過庭竹, 鶯歌拂井桐. 羅縉垂薄霧, 環珮響輕風. 絳節隨金母, 雲心捧玉童. 更深人悄悄, 晨會雨濛濛. 珠瑩光文履, 花明隱繡龍. 瑤釵行彩鳳, 羅帳掩丹虹. 言自瑤華圃, 將朝碧帝宮. 因遊洛城北, 偶向宋家東. 戲調初微拒, 柔情已暗通. 低鬟蟬影動, 迴步玉塵蒙. 轉面流花雪, 登牀抱綺叢. 鴛鴦交頸舞, 翡翠合歡籠. 眉黛羞頻聚, 唇朱暖更融. 氣清蘭蕊馥, 膚潤玉肌豐. 無力備移腕, 多情愛斂躬. 汗光珠點點, 亂髮綠鬆鬆. 方喜千年會, 俄聞五夜窮. 留連時有限, 纏綿意難終. 慢臉含愁態, 芳辭替素衷. 贈環明運合, 留結表心同. 啼粉流清鏡, 殘燭透暗蟲. 華光猶冉冉, 旭日漸離離. 乘鶯還歸洛, 吹簫亦上嵩. 衣香猶染麝, 枕膩尚殘紅. 暮暮臨塘草, 飄飄思渚蓬. 素琴鳴怨鶴, 清漢望歸鴻. 海闊誠難渡, 天高不易衝. 行雲無定所, 蕭史³¹⁾在樓中.)³²⁾

31) ‘蕭史’는漢나라 劉向의《列仙傳》(劉向撰, 張全嶺 註譯, 《(新譯)列仙傳》, 三五, 蕭史, 臺北, 三民書局, 1997, 112쪽)에 나오는 인물로《列仙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소사는 진나라 목공 백의 사람으로 통소부는데 뛰어난 공작과 백학이 정원에 울 정도였다. 목공은 딸이 있어 자가 농옥이었으며, 그를 좋아하였다. 소사는 농옥을 아내로 삼았다. 하루는 농옥에게 봉황 울음소리 부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여러 해가 지나자, (농옥이) 마치 봉황 소리처럼 통소를 불러 봉황이 와서 그 집 에 머물렀다. 소사는 鳳臺를 지었다. 부부가 그 누대에 머물면서 몇 년간 내려오지 않았다. 어느날 아침 둘이 함께 봉황을 따라 날아갔다(蕭史者, 秦穆公時人也. 善吹簫, 能變孔雀白鶴于庭. 穆公有女字弄玉, 好之. 公遂以女妻焉. 日教弄玉作鳳鳴, 居數年, 吹似鳳聲, 鳳凰來止其室. 公爲作鳳臺. 夫婦止其上, 不下數年, 一旦皆偕隨風飛去.)” 원진은《會真詩三十韻》에서 자신을 ‘소사’에 비유하며, ‘앵앵이 떠난 뒤 누대에 혼자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32)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76-677쪽, 〈鶯鶯傳〉中.

원진의 전기소설 《앵앵전》에도 나오는 이(會真詩三十韻)의 앞 20구는 앵앵과의 밀회에 앞선 배경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먼저 희미한 달이 비추는 몽환적인 주위 환경을 묘사한 다음 앵앵을 서왕모에 비유하여 그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선이 사는 요화포로부터 와서 원진과 잠깐 머무른 다음 천체를 뵈러 벽제궁으로 간다며 대부분을 마무리짓고 있다. 이어지는 중간 20구는 앵앵과의 동침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앵앵의 외모 - 원앙과 비취새의 사랑을 통한 앵앵과 자신과의 동침 묘사 - 앵앵의 입술, 숨결, 피부, 흩어진 머리칼 등을 통해 앵앵과의 육체적 교감을 노래하고 있다. 시각과 후각, 촉각을 풍부하게 운용하여 사랑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³³⁾ 이어지는 마지막 20구는 앵앵과의 아쉬운 작별과 함께, 낙수와 송산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앵앵을 신선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앵앵이 떠난 다음 원진이 느끼는 허전함과 여운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옛날 그대와 꿈에 봄놀이를 했는데, 꿈에 놀다가 어디서 만났던가? 꿈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마침내 평생의 의미를 이루었네. 청평(淸泠)의 맑고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 아름답게 꾸민 배가 난초 샅대로 건너네. 만 그루 복숭아 나무를 다 지나고, 대숲 길을 빙 도는구나. 큰 행랑채 작은 누각을 품고 있고, 문과 창문이 서로 교대로 있네. 누각 아래는 잠뜰의 꽃 더미, 더미 옆에는 원앙과 백로가 둘러싸고 있구나. 연못 빛에는 고운 놀이 출렁이고, 새벽 해가 처음으로 밝고 따뜻하게 비추네. 감히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구불구불한 연못으로 옮겨 가 걷는구나. 개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가씨는 일찍이 서로 그리워 했다네. 점점 발과 막 사이로 도착하니, 배회하여 마음이 오히려 두렵구나. 한가로이 동서의 문을 보고, 들쭉 날쭉한 친들을 기이하게 여겨 장난하네. 창문은 청록빛으로 칠하고, 좁은 고리 보랏빛 금색으로 도금했네. 머뭇거리리는 해는 점점 높이 떠서, 사람이 잠에서 깨도록 하는구나. 앵무새는 배가 고파 마구 울어대고, 졸린 짐승 잠자다가 더욱 노한 것 같네. 발

33) 이지운은 《전통시기 중국문인의 애정 표현 연구 -이상은을 중심으로》(한국학술정보, 2007), 49-56쪽에서 중당 애정시의 특징을 1. 시인과 그 향유계층이 증가 2. 체제 면에서 舊題를 답습하거나 민가를 모방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가의 소박함과 열정, 명쾌함에 문인의 단련을 가한 작품이 창작됨 3. 이전의 문인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風情과 성에 묘사를 대담하게 묘사하여 시경을 확장한 것 등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성에 묘사를 대담하게 한 예로 원진의 《회진시삼십운》을 들고 있다.

이 열리니 시동이 일어나고, 나를 보고 멀리서 서로 기뻐하네. 붉은 자리 깔고, 비녀와 장신구 늘어놓네. 비취 휘장을 몰래 걷어올리고, 산호 모양 나무 가지를 잠깐 보네. 꽃같은 자태의 사람 구분 못하고, 이슬 같은 향기에 공연히 놀라거나. 몸을 돌려 보니 합환목이 기울어져 있고, 자태를 추스르니 새벽 높이 모이네. 잠든 얼굴은 복숭아가 바람에 쪼개진 듯 하고, 땀에 젖은 화장은 연꽃에 이슬이 모인 것 같네. 촘촘히 빗질 해 만든 백엽계(百葉髻) 머리, 금실로 수놓은 중대리(重臺履) 신발. 보드랍고 화려한 수가 놓인 치마, 영롱하게 염색한 합환(合歡) 바지. 곱디 고운 연지와 분 얇게 바르고, 어두운 빛깔 옷은 오래되었다네. 붉은 모란꽃과 가장 비슷하지만, 비가 오니 붉은 가려고 하네. 꿈 속의 혼은 진실로 쉽게 놀라고, 영혼의 세계는 오래 깃들기 어렵다네. 밤마다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고, 이유없이 거둬 흘러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구나. 전념하여 마음이 바라는 바는, 도리어 선(禪)의 돈오(頓悟)와 같구나. 깨달은 지 8, 9년, 꽃을 향해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네. 사람들이 모여 든 장안과 낙양의 봄, 가득 찬 두 도읍의 여인들에게서 나를 지켰다네. 내가 꽃을 볼 때는 다만 선녀를 그리워하는 구절을 지었다네. 뜰 구름 같은 삶 돌고 돌아 세월은 가고, 도덕 품성은 더욱 견고해졌다네. (昔君夢遊春，夢遊何所遇？夢入深洞中，果遂平生趣。清泠淺漫溪，畫舫蘭篙渡。過盡萬株桃，盤旋竹林路。長廊抱小樓，門隔相回互。樓下雜花叢，叢邊繞鶯鷺。池光漾彩霞，曉日初明照。未敢上階行，顏移曲池步。烏籠³⁴⁾不作聲，碧玉³⁵⁾曾相慕。漸到簾幕間，徘徊意猶懼。閑窺東西閣，奇玩參差布。格子³⁶⁾碧油糊，駝鉤紫金鏡。逡巡日漸高，影鬻人將寤。鸚鵡飢亂鳴，嬌娃睡猶怒。籠開侍兒起，見我遙相諭。鋪設是紅茵，施張細妝具。潛褰翡翠帷，瞥見珊瑚樹。不見花貌人，空驚香若霧。回身夜合偏，斂態晨霞聚。睡臉桃破風，汗妝蓮委露。叢梳百葉髻³⁷⁾，金蹙重臺履³⁸⁾。批歡殿頭裙，玲瓏合歡袴。最似紅牡丹，雨來春欲暮。夢魂良易警，靈境難久寓。夜夜望天河，無由重浴沂。結念心所期，返如禪頓悟。覺來八九年，不向花回顧。雜洽兩京春，喧闐衆禽護。我到看花時，但作懷仙句。浮生轉經歷，道性尤堅固。)³⁹⁾

위에서 인용한 시는 원화 5년(810) 원진이 32세 때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34) 烏籠은 도연명의 《搜神後記》에서 유래한 말로 '집의 개'를 가리키며, 보통 남녀간의 즐거운 만남을 암시한다.
 35) '碧玉'은 宋 汝南王의 첩 이름이다. 汝南王이 쓴 《碧玉歌》3首 중에 "碧玉小家女"라는 구절이 있어 뒤에 '碧玉은 여염집 여인을 노래하는 전고가 되었다.
 36) 윗부분에 네모난 빈 공간이 있는 창문이나 문을 가리킨다.
 37) '百葉髻'는 중국 고대 여인들의 머리형으로 상부같은 것을 중첩하여 만든 머리 모양이다.
 38) '重臺履'는 중국 고대 여인들이 신던 굽이 높은 신발로 南朝의 宋나라에서 시작되었다.
 39) 元頤 撰，冀勤 點校，《元頤集》，中華書局，1982，635-636쪽.

쓴 《夢游春七十韻》 일부분이다. 이 시에서 원진은 영앵과의 사랑을 꿈에서 봄놀이 하는 정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는 깊은 동굴에서 본 주위 배경 묘사 - 배를 타고 복숭아 숲, 대나무 숲을 지나 누각에 도달하는 과정 - 꽃이 만발한 정원, 노닥거리는 원앙, 노을이 비치는 연못, 아름다운 누각 등의 묘사 - 영앵의 용모, 머리 모양, 장식, 옷 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 合歡 - 이별 - 이별 이후 다른 여인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은 자신에 대한 묘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영앵을 버리고 명문가 딸 위충과 결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원진이지만 위의 시를 보면 결코 영앵을 마음 속에서 잊지 못하고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시들은 원진이 영앵과의 사랑을 合歡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노래한 것들로 주로 영앵의 신비로움, 영앵의 고혹적인 외모, 영앵의 춤과 연주, 영앵과의 동침으로 인한 사랑의 달콤함 등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영앵과의 동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전의 문인 애정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문인 애정시의 소재를 넓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잠깐의 헤어짐과 그리움

22세 때 보구사에서 영앵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원진은 이 해 가을 吏部의 관리 선발 절차를 밟기 위해 장안에 가면서 잠시 영앵과 헤어져 있게 된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영앵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과거시험을 보러 장안으로 떠나게 된다. 원진이 영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에는 이 기간 동안의 헤어짐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다. 〈暮秋〉는 원진이 장안에 과거 시험을 위한 절차를 밟으러 잠깐 다녀왔을 때 떠나기 전날 밤 쓴 시이다. 《영앵전》에 "장차 떠나려는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장생은 서쪽으로 갔다(將行之再夕，不復加見，而張生遂西)"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진과 영앵은 이별 전날 만나지 못하였다.

담 서쪽의 해가 또 지는 것을 보고, 복도가 구불구불하더니 문이 깊은 곳에 있구나. 보금자리의 까마귀는 나무 가득한데 소리마다 끊어지고, 시녀가

침대에 올라 밤 이불을 꺼네.(看着牆西日又沈, 步廊迴合戟門深, 棲鳥滿樹聲聲絕, 小玉上牀鋪夜衾.)⁴⁰⁾

이 시에는 가을날 앵앵 없이 원진 혼자 잠드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아래의 시〈曉別〉에는 원진이 장안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에 앞서 앵앵과 헤어지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바람 맞은 이슬이 새벽에 싸늘한데, 달 아래 서쪽 담의 서쪽 길 떠나는 이는 휘장 안에서 일어나고, 시름깊은 여인은 배계 말에서 운다네. 분주히 하인에게 명하여, 새벽 단장 정중히 이미 마쳤네. 떠나려 하니 다시 손을 잡아. 해가 높아져서야 손을 놓네.(風露曉淒淒, 月下西牆西, 行人帳中起, 思婦枕前啼, 屑屑命儻御, 晨妝儼已齊, 將去復攜手, 日高方解攜.)⁴¹⁾

같이 밤을 보낸 뒤, 새벽에 장안으로 떠나려는 원진을 바라보며 앵앵이 우는 모습, 원진을 차마 보내지 못하여 다시 손을 잡고는 하다가 완전히 날이 밝아서야 보내는 앵앵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이미 쌀쌀해지고, 떠나온 사람 먼 님 생각이 간절하네. 여름 옷은 새벽에 얇음을 느끼고, 가을 그림자 처마로 들어와 길게 늘어지네. 예전 일 바람 따라 생각나고, 돌아가고픈 마음에 제비는 다리에 앉아 있네. 절절한 마음 직녀에게 부치건만, 은하수에서 다만 서로 바라만 보네.(旦暮已淒涼, 離人遠思忙, 夏衣臨曉薄, 秋影入檐長, 前事風隨扇, 歸心燕在梁, 殷勤寄牛女, 河漢正相望.)⁴²⁾

위의 시는 〈新秋〉로 장안으로 온 원진이 앵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 멀리 두고 온 앵앵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앵앵을 '직녀'로 자신을 '견우'로 비유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애절함을 노래했다.

40)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6쪽.
41)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3쪽.
42)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3-684쪽.

밤이 깊어 한가히 문가로 와, 버드나무가 둘러싼 행랑채에서 또 홀로 잠들었네. 밝은 달빛은 정원 가득하고 연못 물은 맑은데, 오동나무 꽃은 비취빛 발 앞에 늘어져 있구나.(夜深閑到戟門邊, 柳遶行廊又獨眠, 明月滿庭池水淥, 桐花垂在翠簾前.)⁴³⁾

이 시는 〈憶事〉로 앵앵과 연애했던 일을 추억하여 쓴 것이다. 시 속의 '행랑채(行廊)'는 앵앵과 함께 밤을 보낸 앵앵과의 추억이 남아 있는 곳으로 앵앵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보이는 시이다. 아래의 시〈春別〉에서는 원진이 앵앵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앵앵의 입을 빌어 노래하고 있다.

그옥한 향기는 본래 막을 수가 없거늘, 그대가 떠나고 향초의 꽃이 시들었네요. 은하수에서의 가을 기약은 밀고, 관산의 세상 길은 험난하네요. 구름 병풍은 가루같은 솜을 남기고, 바람 휘장은 향기로운 난초를 끌어 당겨요. 애끊는 회문(迴文)이 쓰인 비단, 봄은 깊건만 나만 홀로 보네요.(幽芳本未闌, 君去蕙花殘, 河漢秋期遠, 關山世路難, 雲屏留粉絮, 風幌引香蘭, 腸斷迴文錦, 春深獨自看.)⁴⁴⁾

이 시에는 쯤나라 竇滔의 아내 蘇蕙가 남편 竇滔가 秦州刺史로 떠난 뒤 남편을 그리워하여 迴文詩를 쓴 비단을 짜 남편에게 보낸 이야기가 나온다. 그 迴文詩의 내용이 절절하였으며 모두 840자였다 한다. 여기서는 소혜의 이야기를 빌어 앵앵이 원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곧 원진 자신이 앵앵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가을에 헤어진 뒤의 원진의 앵앵에 대한 애끓는(腸斷) 그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래의 시는 원진이 정원 17년(801) 23세 때 앵앵의 편지를 받고 쓴 시〈魚中素〉이다.

여러번 짚은 잉어 뱃 속의 비단 편지, 밀봉된 것이 손에서 지질로 펼쳐지네. 머리에 붉은 꽃 꽃은 채 남은 눈물 흔적, 뺨이 닿았음을 알겠구나.(重疊

43)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7쪽.(이 시는 앵앵과 연애했던 일을 추억하여 쓴 것으로, 원진이 장안으로 가 잠깐 헤어져 있었을 때 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앵앵과 완전히 결별한 후 앵앵을 그리며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진이 앵앵과 잠깐 헤어져 있던 기간에 쓴 것으로 보고 서술했다)
44)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4쪽.

魚中素，幽緘⁴⁵⁾手自開。斜紅餘淚跡，知着臉邊來。⁴⁶⁾

이 시의 제목인 '魚中素'는 '잉어 뱃 속의 비단편지'라는 뜻이다. 이 시는 동한말 악부 《飲馬長城窟行》에 나오는 '잉어 두 마리(雙鯉魚)' 이야기를 빌어 앵앵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노래하고 있다. 《飲馬長城窟行》에 "손님이 먼 곳에서 와, 나에게 잉어 두 마리를 주었네. 아이를 불러 잉어를 익히니, 뱃 속에서 비단에 쓴 편지가 나왔네(客從遠方來，遣我雙鯉魚，呼兒烹鯉魚，中有尺素書)⁴⁷⁾"라는 구절이 있어, 뒤에 '잉어 두 마리(雙鯉魚)'는 편지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 시에는 편지를 쓸 때의 앵앵의 모습을 상상하며, 편지에 남은 앵앵의 눈물 흔적을 보는 원진의 애잔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시들은 원진이 과거시험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 앵앵과 헤어져 있었던 시기에 앵앵과의 헤어짐과 앵앵에 대한 그리움을 쓴 것들이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직녀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견우처럼 앵앵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이 간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3)결별과 지난 날에 대한 추억

정원 18년(802) 24세 때 원진은 앵앵과 결별을 하게 된다. 22세 때 보구사에서 앵앵과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원진은 이로써 앵앵과의 몇 년간의 사랑을 마감하게 된다.⁴⁸⁾ 원진이 앵앵을 대상으로 하여 쓴 애정시에는 앵앵과 완전한 결별

45) 밀봉하다.

46) 元稹 撰，冀勤 點校，《元稹集》，中華書局，1982，684쪽.

47) 《漢魏六朝詩經賞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6，93쪽.

48) 결별의 이유는 원진이 앵앵을 결혼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이다. 《앵앵전》에는 앵앵이 "애초에 문란하게 시작하여 마침내 버림받게 됨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니 저는 감히 원망하지 않습니다(始亂之，終棄之，固其宜矣，愚不竚歎)"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는 앵앵이 원진(즉 소설 속의 장생)을 감히 정식 배필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앵앵이 명문세가의 규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론이며, 앵앵과 결별한 다음해인 정원 19년(803) 즉 25세 때 원진은 당시 세도가 위하경의 딸 위충과 결혼하게 된다. 허충은 《元稹與崔鶯鶯》(北京，中華書局，2004，128쪽)에서 중당 문인들은 밖으로는 사회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내면의 감정에 충실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진 역시 이러

을 할 때의 아픔과 결별 후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들도 있다. 〈古決絕詞〉 3首에는 앵앵과 결별할 때의 원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갑자기 하늘의 견우 직녀성이 되어 정원 앞 붉은 무궁화 가지처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 7월 7일 한 번 만나고는, 만난 뒤 내 마음 어찌 해도 변하지 않네요. 어찌 새처럼 아침에 놓아 주면 저녁에 날아가고, 구름처럼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헤어져 둘이 서로 지켜주지 못하고, 둘이 서로 그리워하기도 못함이 한스럽네요. 마주 대하고도 이리하니, 얼굴을 돌린 후에는 어뭘까요? 봄바람에 어지러이 울어대는 때까치 소리, 하물며 이 때는 날 버리고 가는 때네요.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서로 묻지만, 끝내 뒤를 기약하는 말은 않는군요. 그대의 정이 이미 끊어졌으니, 침의 마음은 이미 부서졌어요. 삶과 죽음의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어찌 지금처럼 영원히 슬퍼할 수 있을까요!(乍可爲天上牽牛織女星，不願爲庭前紅檜枝。七月七日一相見，相見放心終不移。那能朝開暮飛去，一任東西南北吹。分不兩相守，恨不兩相思。對面且如此，背面當何如? 春風撩亂伯勞語，況是此時拋去時。握手苦相問，竟不言後期。君情既決絕，妾意亦參差。假如死生別，安得長苦悲!)⁴⁹⁾

〈古決絕詞〉의 제 1수인 위의 시는 원진이 앵앵의 입을 빌어 결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원진의 결별 선언 앞에, 앵앵은 헤어지자고 해서 풀어주면 곧 날아가는 새나 이리저리 흘러가는 구름처럼 어찌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마음을 애절하게 하소연한다. 이별이 기정사실이 된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어도 이리 냉랭하니 얼굴을 돌린 후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원진의 사랑이 끊어진 지금 앵앵의 마음은 산산히 부서졌음을 절절하게 노래한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사별보다 더 아픈 생이별에 절규하고 있다.

아 봄이 되어 얼음이 녹을텐데, 어찌 내 마음은 유독 맺힌 것처럼 움직인가?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덧 끊어졌구나. 하루 못보면, 하루가 3년같은데, 하물며 3년의 이별이라니. 물은 바람이 불면 작게 불어도 이미 물결이 치는데, 띠풀 속의 대순이 높은데도 마디를 보지 못하네. 하물며 복숭아와 오얏꽃이 봄을 만났으니, 다투어 많은 사람들이 울라 귀고자 하네. 내가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원진이 앵앵과 사랑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것이고, 위충과 결혼한 것은 사회적인 명분에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49) 元稹 撰，冀勤 點校，《元稹集》，中華書局，1982，638-639쪽.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구름같이 유유히 흘러가니, 또 어찌 그대의 눈같이 하얗을 지킬 수 있겠는가? 파경이 분명함을 느낀 뒤의, 내 눈물 흔적의 피자국을 보았는지. 다행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지 않았으니, 또 어찌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당신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는가? 그만두자! 직녀가 견우와 헤어져 일년에 한 번 잠시 서로 만나니, 은하수를 사이에 둔 서로가 어찌 아무 일도 없으리오. (噫春冰之將泮, 何予懷之獨結? 有美一人, 於焉曠絕. 一日不見, 比一日於三年, 況三年之曠別, 水得風兮小而已波, 荀在苞兮高不見筓. 矧桃李之當春, 競衆人之攀折. 我自顧悠悠而若雲, 又安能保君皚皚之若雪? 感破鏡之分明, 睹淚痕之餘血. 幸他人之既不我先, 又安能使他人之終不我奪? 已焉哉! 織女別黃姑⁵⁰⁾, 一年一度暫相見, 彼此隔河何事無.)⁵¹⁾

위의 시는 〈古決絕詞〉의 제 2수로 앵앵과의 결별에 대한 원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모순된 심리를 노래하고 있다. 먼저 보구사에서 앵앵과 사랑을 나누지 3년이 지났으며 너무도 긴 시간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음을 노래한다. 이어서 앵앵을 '복숭아와 오얏꽃(桃李)'으로 비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꺾고자 하는데, 자신은 구름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사람으로 앵앵을 지켜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앵앵에게 자신이 첫 번째 사랑이었던 것에 대한 안도와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앵앵을 뺏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 앵앵에게 다른 사람이 생경도 당연한 일이라며 앵앵과의 결별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밤마다 서로 안고 잠들어, 마음 속 품은 정은 오래 맷혀있네요. 이별 후 그 일 년의 일을, 하루 밤의 이야기로 다 풀 수 있으리오. 오랫동안 서로 그리워했던 것만 느껴서는, 어느 틈에 잠시나마 만남을 서로 기뻐할 수 있으리오? 무지개 다리가 땅거미질 때 생기고, 임금의 수레가 새벽녘에 들어서 있네요. 살아서는 들의 학 성품이 더디 돌아옴을 미워하고, 죽어서는 하늘 님이 배를 얹을 한스러워 하네요. 새벽 빛에 점점 해가 뜨고, 별은 사라지려 하네. 한번 가면 또 일 년이니, 일 년을 어느 때 다 지내리요? 이처럼 먼 기약이라면 죽어 이별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네. 하늘이 가로막음이 이리하니 서로 좋아함을 절투하는 것인가요, 어찌 서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인가요!(夜

50) '黃姑'는 '견우성'을 가리킨다.
51)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38-639쪽.

夜相抱眠, 幽懷尙沉結. 那堪一年事, 長遣一宵說. 但感久相思, 何暇暫相悅? 虹橋薄夜成, 龍駕侵晨列. 生憎野鶴性遲回, 死恨天雞識時節. 曙色漸瞳瞳, 華星欲明滅. 一去又一年, 一年何時徹? 有此惡遷期, 不如生死別. 天公隔是如相憐, 何不便教相決絕!)⁵²⁾

〈古決絕詞〉의 제 3수인 위의 시는 원진과 앵앵이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구사에서 서로 사랑했던 정은 오랫동안 맷혀 있지만, 이렇게 오래 헤어졌다 한 번씩만 만나니, 차라리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론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古決絕詞〉 3수에서는 원진이 앵앵과의 이별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찾아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며, 이를 통해 앵앵과의 정을 끊고 있다. 이렇게 앵앵과 결별한 원진은 그 후 앵앵을 생각하며 쓴 시들도 남기고 있다. 다음은 〈夢昔時〉이다.

한적한 창문으로 희미한 꿈 꾸니, 이 꿈 누가 알까? 한 밤에 처음으로 함께 하고, 날이 밝으니 갈 때가 되었는지. 산천은 이미 오래 떨어져 있고, 이별하여 두 사람 만날 기약 없네. 어떤 일로 와서 서로 감상에 젖었다가, 또 새로이 이별하였다네. (閑窗結幽夢, 此夢誰人知? 夜半初得寤, 天明臨去時. 山川已久隔, 雲雨兩無期. 何事來相感, 又成新別離.)⁵³⁾

예전에 앵앵과 사랑하던 일을 회상한 이 시에서 원진은 앵앵과 함께 첫날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 앵앵이 떠나갔던 일, 그리고 자신이 과거시힘으로 인해 장안으로 가면서 앵앵과 이별했던 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또 헤어진 일을 꿈 속처럼 아련하게 떠올리고 있다. 아래의 〈嘉陵驛〉 2수도 예전 앵앵과의 사랑을 추억하며 쓴 시이다.

가릉역 옆 빈 침대 객은, 밤 내내 가릉강의 물소리 들네. 담 남쪽 산에 가득한 나무를 마주보니, 들꽃 어지러이 피고 달은 희미하게 밝구나. (嘉陵驛上空旅客, 一夜嘉陵江水聲. 仍對牆南滿山樹, 野花撩亂月朧明. (其一))

52)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38-639쪽.
53)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1쪽.

담 밖의 꽃 가지 낮은 담 누르고, 달이 밝아 또 침대 반을 비추네. 이 때의 마음을 알아줄 이 없어, 밤 내내 혼자 서쪽 행랑채에서 잤다네. (牆外花枝壓短牆, 月明還照半張牀. 無人會得此時意, 一夜獨眠西畔廊. (其二))⁵⁴⁾

위의 시 제 2수에 나온 '서쪽 행랑채(西畔廊)'는 보구사에서 앵앵과 밀월 기간을 보냈던 곳으로 앵앵과의 일들을 추억함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원진이 앵앵과의 결별을 노래한 〈古決絕詞〉 3首와 결별 후 지난 날 앵앵과의 일을 추억하는 시들을 살펴보았다. 〈古決絕詞〉 3首에서는 결별할 때의 심정을 앵앵의 목소리와 원진 자신의 목소리로 각각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으며, 앵앵과의 지난 날을 추억하는 시들에서는 예전의 일들을 아련하게 떠올리며 회상하고 있다.

5. 결론

원진의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는 중당 시기 유가적 가치관의 속박이 느슨해진 시대적 분위기와 '風流才子'로서의 원진 개인적 성향이 결합되어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진이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를 크게 내용상 앵앵과의 밀월의 즐거움을 노래한 '合歡의 즐거움', 원진이 장안으로 吏部の 시험을 보러 떠나는 전후 앵앵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잠깐의 헤어짐과 그리움', 원진이 앵앵과 완전히 이별할 때와 이별 후의 감정을 노래한 '결별과 지난 날에 대한 추억'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이 중 원진 애정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앵앵과의 밀월의 즐거움을 노래한 '合歡의 즐거움' 부분으로 주로 앵앵의 신비로움, 앵앵의 고혹적인 외모, 앵앵의 춤과 연주, 앵앵과의 동침으로 인한 사랑의 달콤함 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앵앵과의 동침을 시의 형식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전의 문인 애정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원진은 앵앵과의 애정시에서 상징이나 은유 등의 수사법을 많이 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박한 언어로 사랑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54)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197쪽.

원진의 애정시는 유가적 시교관의 지배를 받던 대부분의 문인들이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감히 표현 못하고 악부 민가의 형식을 빌거나, 여성 화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입으로 노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원진이 "즐거워도 음란하지 않고, 슬퍼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樂而不淫, 哀而不傷)"다는 유가적 시교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세계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중당시기 시가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2.
 元稹 撰, 楊軍 箋注, 《元稹集編年箋注(詩歌卷)》, 西安, 三秦出版社, 2002.
 元稹 撰, 楊軍 文筆 呂燕芳 選注, 《元稹詩文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4.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隋唐制度淵源略論稿(外二種)》,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周相銘, 《元稹年譜新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許總, 《元稹與崔鶯鶯》, 北京, 中華書局, 2004.
 黃冬紅, 〈元稹艷詩與悼亡詩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唐佳, 《論中唐艷詩的文化心態》, 華僑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金경동, 〈원진론-임환생에(任宦生涯)와 <앵앵전(鶯鶯傳)> 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11집, 1993.
 김중근 편역, 《(한국문학과 관련 있는)중국 전기 소설선》, 서울, 박이정, 2005.
 정범진 편역, 《앵앵전》,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김경동, 〈원진·白居易 사회시 연구〉, 成均館大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7.
 주기평, 〈중국 도망시(悼亡詩)의 서술방식과 상징체계〉 《중국어문학》 45집, 2005.
 이지운, 《전통시기 중국문인의 애정 표현 연구 -이상은을 중심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中文提要》

元稹是中唐时期的主要诗人，不过在韩国对他的研究主要集中在他的新乐府和传奇小说《莺莺传》这两个方面，他的爱情诗却还没有受到足够的重视。本论文以元稹写给莺莺的爱情诗为研究对象进行了分析。

本论文在第二章主要论述了元稹爱情诗的创作背景。元稹爱情诗的创作背景从两个方面可以进行讨论。一、中唐时期的社会风气。当时的开放的社会气氛、礼教衰微以及逸乐的城市生活等都影响到中唐时期文人的文化心态，元稹也受到当时社会风气的影响。二、元稹的成长过程。小的时候元稹的家庭既放松管束，又置身于汉胡杂居的风潮，这也影响到元稹成为风流才子。

第三章把元稹写给莺莺的爱情诗分成三个部分进行了探讨。一、由于合欢的欢喜。在这一部分的诗歌里元稹主要写了迷人的莺莺的外貌、莺莺的歌舞、莺莺带有的神秘的气氛和合欢的欢喜等。二、暂时的离别和思念。在这一部分的诗歌里元稹主要写了暂时离开莺莺时对莺莺的深切的思念。三、诀别和对过去的怀念。〈古决绝词〉3首诗歌表达了与莺莺诀别时元稹自己的心情，在这一部分的其他诗歌里还写了回想与莺莺相爱的往事。

古代在儒家诗教观的束缚下，大部分文人不敢直言自己的爱情，不过在写给莺莺的爱情诗里元稹真实地抒发自己的内心情感，这就是元稹爱情诗的意义所在。

关键词：元稹 爱情诗 艳诗 莺莺 中唐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